

영광엑스포, 9만명 방문... 283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세계 18개국서 120개 기업 참가 대마산단에 4개 기업 입주 의향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된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이하 '영광엑스포')가 성황리에 폐막 되었다.

전남에서 개최하는 첫 산업박람회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e-모빌리티 산업 국내외 전문가와 바이어 뿐만 아니라, 초·중·고 대학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 8만 7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영광이 자동차산업의 불모지에서 미래형 e-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동남아 등 16개국 23개사의 해외 바이어들이 엑스포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대풍종합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준성 영광군수가 엑스포장의 전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상사 등 42개 기업과 2,8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다는 평가다.

또한, 엑스포를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타 지역에 소재한 e-모빌리티 관련 4개 기업이 영광 대마산단에 적극적인 입주의

향을 보이면서 향후 투자유치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 엑스포는 18개국 120개사(국내 97개사, 해외 23개사)가 참가하여 기업 제품PR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산업부·국토부·환경부가 합동으로 e-모

빌리티 보급, 안전기준, 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갖는 등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집배용 e-모빌리티 보급 시범사업을 영광군과 함께하기로 업무협약도 맺었다.

관람객이 실내·외 체험장에서 직접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농업용전동차, 초소형전기차까지 e-모빌리티 전제품을 직접 타보고, 구입할 수 있는 종합마케팅장으로 운영하여 참가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최신 e-모빌리티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데이' 이벤트,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학생과 프로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드론 경주 대회 및 체험행사, 지역 과학영재들의 과학축전, 로봇 케이팝공연, 아이돌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영광 대마산단에 입주 예정인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업 캡시스 박영태 대표는 "새롭게 출시한 전기차를 관련업체와 국내의 바이어, 정부 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면서, "e-모빌리티 산업의 전국적인 홍보와 소비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박람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혁신성장특구를 지정 받아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e-모빌리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영광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대마산단에 입주한 4개 기업이 올 하반기에 생산공장을 착공하여 내년부터는 호남권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 생산공장이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metroseoul.co.kr

“온가족 함께 할로윈축제 즐겨요”

27~28일 체인지업캠퍼스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이하 체인지업캠퍼스)에서 10월 마지막 주말인 27일, 28일 양일간 '2018년 할로윈 축제'가 개최된다.

체인지업캠퍼스(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대표적인 시즌 이벤트인 이번 축제는 캠프를 할로윈 테마로 꾸며,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유령사탕 만들기 ▲플라로이드 사진꾸미기 ▲할로윈과 관련한 영어표현을 배울 수 있는 'Trick or Treat' 수업과 퀴즈게임뿐만 아니

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캘리그래피 ▲캐리커처 ▲K-pop댄스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연기와 노래를 전공한 원어민 강사들의 영어 창작 뮤지컬 '아나스타샤'와 '좀비 친구들과 함께하는 할로윈 파티'라는 제목의 야외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 태권도 시범공연과 버블공연 등이 있다.

유도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체인지업캠퍼스에서 할로윈을 테마로 한 다양한 행사와 색다른 체험을 통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20일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

'2018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가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의정부 시청 앞 잔디광장 일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는 도내 장애인가족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축제는 '우리가족 Fall(秋) in love'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야외무대에서 축제를 진행함으

로써, 장애인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로 구성된 예술 동아리들이 무대에 올라 K-POP 댄스, 밴드연주, 난타, 합창, 라인댄스, 우쿨렐레 연주 등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가수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와 함께, 미9군 군악대, 비보이팀 '퓨전MC' 등이 공연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어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궂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김승열 기자

학생 주도 학교주변 아동 안전지도 제작

광주 남구, 위험장소에 CCTV 설치
가로등 보수하고 순찰 강화하기로

광주 남구 관내 초등학교들과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초등학교들의 성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등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해 관심이 되고 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제석초교와 대촌중양초교, 방림초교에서 학교 주변에 대한 위험 요인 및 범죄 위험 지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도가 제작됐다.

이 지도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학교 주변 통학로와 골목길, 공터, 놀이터, 도로 등을 직접 탐방한 뒤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지역을 각각 붉은색과 초록색 스티커로 표시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방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안전 지도에는 '신호등 고장과 횡단보도선이 흐려 위험하다'거나 '차들이 빨리 다녀 위험', '형·오빠들이 비비총을 쏘아 위험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제석초 지도제작 결과 발표.

남구는 학생들이 제작한 아동 안전지도를 바탕으로 위험 장소로 파악된 곳에 CCTV 설치 및 가로등을 보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학부모와 교사, 주민들이 함께 참여토록 해 학교 주변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아동 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 주

도로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아동 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해 7년간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하게 됐다"며 "안전지도 제작 결과물은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봉태경 기자 bcy2020@

“가을여행, 영광으로 오세요”

영광군, 체험·숙박 등 이벤트

영광군은 오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FALL IN 영광, 영광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가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영광군의 대표 가을 관광지로는 단풍 명소로 알려진 천년고찰 불갑사,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의 전망대 칠산타워, 노을이 아름다운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 백수해안도로 등이 있다.

영광군은 가을 여행주간 기간에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지과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할인혜택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영광여행' 여행주간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추억을 공유한 후 영광군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영광군 특산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원도심 활성화 등 민선7기 공약 실행

전남 무안, 8대 분야 77개 공약 확정

전남 무안군은 민선7기 '군민과 함께하는 생동하는 행복무안' 실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군은 김산 무안군수가 후보시절 군민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이행 검토와 보고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8대 분야 77개 공약, 90개 세부사업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선7기 확정공약은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 10개, 부자되는 농수축산분야 28개, 함께하는 평생복지분야 12개, 희망가득 새 일자리분야 7개, 찾아오는 문화관광분야 7개, 열린행정 안심교육분야 10개, 쾌적한 생활환경분야 8개, 살고싶은 명품낙약분야 8개 등 8대 분야 총 77개

사업(90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공약 사업을 보면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10개 사업을 제시했다.

부자되는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농민수당 지급 ▲첨단 스마트팜 조성 ▲로컬푸드 ▲양파 마늘등 주요작물 경쟁력 강화 ▲수산물 위판장 건립 ▲갯벌낙지 수산자원 조성 ▲동물복지형 축산 육성 ▲김 명품화 사업 등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함께하는 평생복지 분야에서는 ▲행복택시 운영 확대 ▲출산·육아 지원 ▲장애인 이동차량 확충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희망가득 새 일자리 분야에서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청계3농공단지 조성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 등 7개 사업이 확정됐다. /전남 무안=양승환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1 | 해질 17:54

10월 16일(화)
음력 : 9월 8일

수도권 날씨
9 ~ 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4/19, 동두천 6/20, 가평 4/19, 파주 5/20, 서울 9/20, 양평 7/19, 인천 11/19, 수원 8/18, 용인 8/18, 평택 7/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